

# 꿀벌의 2,3월 관리요령



**이성배**  
울산광역시 지회장  
Branch Manager Lee Seong bae  
Ulsan branch of  
Korea Beekeeping Association

일부 양봉인들은 행정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화분과 사료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심지어 다른 축종 단체는 사료까지 지원을 받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사료 값을 저리 용자로 지원하나 이는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협회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지원이라도 받아 자제를 비롯한 화분, 사료라도 조금이나마 싸게 사용하여야 경제적으로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 2월의 양봉관리

### 가. 질량 및 부분사 조사

월동 중에 안정이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봉군 쪽에 식량소모가 많아 질량된 봉군을 볼 수 있다. 견본 검사군을 택하여 내검을 할 때 식량의 유무 식량이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여왕벌의 망실

유무 등을 확인하되 내검은 저밀소비를 오랜 시간 동안 소상 밖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내검과 동시에 축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벌의 숫자에 맞추어 격리판 안쪽으로 몰아붙이되 벌의 밀집도가 높은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사양기 너머로 반소비 이상 넘쳐 있어야 한다. 내검 중 균세 유지가 어려운 봉군을 발견시에는 합군으로 처리 하되 반드시 약군을 강군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나. 대용화분공급

자연화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으나 화분 값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화분 값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섞어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전문적 상식이 없으면 조심하여야 한다. 잘못 배합하면 단백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중에 자연화분을 배합한 대용화분이 많이 시판되고 있어 이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벌들이 한 마리의 유충을 키우려면 0.1g의 화분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 이상 준비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대용화분 제조 시 자연화분30%, 탈지대두분 40%, 맥주효모30% 정도 배합하여 50℃

금년은 눈도 많이 오고 삼한 사온이 무색할 정도로 한파가 몰아친 한해였다. 2월은 봄이 태동하는 달로서 이달에 입춘과 우수가 들어 있다. 겨울동안 추워서 출입을 못한 벌들도 따뜻한 시간을 이용하여 탈분도 하고 남쪽지방에서는 이름 모를 화분도 수집하여 오기도 하며 동백도 피고 버들강아지도 개화한다.

따라서 꿀벌의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관리방법도 점차 과학화되어 과거에 100군당 10D/R의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던 것을 20D/R이상 생산하는 양봉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에는 밀원 식물의 영향이기 보다 사양관리 방법이 점차 발달하고 가온장치의 기술 발달로 추위 속에서도 육아가 가능하고 행정적인 지원 하에 다단계 방법이 원인이지 않나 생각한다.

정도의 온도에 4~5일 두면 발효가 된다. 특히 초보자는 이 화분떡을 벌통에 넣을시, 시간이 경과되어 시큼한 냄새가 난다하여 변질로 벌에 문제가 발생 될까봐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발효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다. 수분 공급

대용화분 못지않게 봉군에게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유충의 방을 청소하거나 젖을 줄때도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된다. 특히 요즘은 전기가온을 이용하거나 보온 덮개를 이용하므로 더욱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날씨가 나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유충이 메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급수기를 이용하여 급수를 해주어도 좋으나 이때 물10ℓ 에 소금을 약간 넣어 급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봉장 주위에 급수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벌들이 수분 공급을 위하여 개울가에 갈다가 온도가 떨어져 동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 라. 보온 장치 보완

봉충 육아를 위한 보온장치 보충이 필요하다. 내부보온 장치로는 두께 5mm 고압 스티로폼을 소상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절단하여 보충이 필요한 면에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소상 밑 부분에 보온을 더욱 신경 써서 소상 내 바닥에 벌이 떨어져도 냉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 마. 축소의 시기와 방법

### (1) 축소 시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땅이 풀리어 탈분한 이후 영하 5℃이상 내려가지 않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그해의 기후를 감안 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남부지역은 2월초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가온을 할 때는 오히려 약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2) 축소 방법

봄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지 않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벌이 낮 늘어 할 정도의 좋은날이 아닌 이상 축소할 때 벌을 털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벌이 붙어 있는 소비를 점검하여 식량이 충분하고 수벌 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착봉 소비로 쓰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소비로 교체하면 되겠는데 전부 신 소비가 아닌 이상 신 소비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착봉은 과거 2~3매씩 붙어서 벌을 길렀지만 1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기온이 낮을 때라서 보온하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벌이 밀집되어 열이 나다보니 산란권 확대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며 벌들 또한 체력소모가 적어 수명이 연장 될수 있으며 처음부터 많이 소비를 넣고 기르는 것보다 1매부터 시작하여 증소하며 기르는 것이 오히려 빠르기 때문이다.

여왕벌이 붙어있는 소비가 아니면 뒷장으로 왕이 넘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사양기 뒤에 최소한 1매 이상의 벌이 넘어 올수 있도록 붙여야 하겠으며, 그 미만은 과감히 합군을 해주고 계상관리 할 봉군은 봄벌이 최소한 2.5매는 되어야 하겠다.

## 3월의 양봉 관리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면 양봉인들에게는 봄 벌 기르기 위한 바쁜 시기가 된다. 작년 가을에 진드기가 심하여 많은 피해를 본관계로 올해는 봄벌관리 시작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정석 아닐까 생각한다.

## 가. 진드기나 가시응애 구제

진드기나 가시응애는 봉충이 형성되면 구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봉충이 되기 이전에 구제를 해주는 것이 정석이 되겠다. 전년도에 진드기가 많았던 봉군은 착봉을 시킬 때 혹시 봉충이 형성된 소비가 있다면 빼내주거나, 봉충판을 칼로 깎아내고 봉충을 틀어버리고 약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아무 생각없이 약제를 사용하여 왔으나 잔류가 자유로운 친환경적인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 하여야 할 점은 기온이 낮은 때라서 피해가 예상 될 수 있으므로 1~2통 시험을 해보고 처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나. 보온

기온이 낮은 시기라도 육아하기 위해 35℃ 정태 온도 육아 온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열을 내기 위해서 식량을 먹고 몸을 움직여 열을 내게 된다. 보온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봄벌관리 시에는 보온이 꼭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하면 과보온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육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보온이 필요하며 증소할 시점부터는 서서히 보온을 해제 해주어야 된다. 2번째 증소시부터 대부분 보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저녁기온이 춥다고 하여 소문 앞까지 보온 덮개를 내려주면 증판이 건조하여 유충을 파내어 곰보 봉충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온상태는 자기 벌통에 맞는 보온이 필요한데 벌들이 스스로 추운지 더운지를 알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벌들의 현실에 맞는 온도를 알아내야 한다. 더

운 것을 알려면 먼저 3~4일 자란 유충을 보아 화분과 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말라있으면 이는 더운 정상이고, 공 소비에 벌이 많이 붙어있고 착봉 소비에 벌이 엉성하게 붙어 있어도 더운 증상이다.

추운 증상은 아침에 개포를 열어보아 벌이 움츠려 있다든가 막이 없으면 추운 증상이고 착봉 소비 뒷면이나 바람에 습기가 맺혀있으면 추운상태이며, 산란권이 더디게 나갈 때도 추운 증상 일 때가 많다.

봄벌 육아 시에는 저녁에 결로현상을 적절히 잘 응용 할 줄 아는 사람이 기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침에 내검을 해 보아 벌통 벽면에 수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눅눅한 상태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 다. 화분공급

벌이 육아하기 위 하여는 화분이 필요한데 이른 봄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가을에 저장된 화분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육아를 할 수 없게 된다.

요즘은 중국산 화분이 들어와 대부분 양봉농가들이 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주의 할 점은 중국의 각종 질병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 필히 국내에서 방사선 처리를 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 라. 물 공급

식량, 화분, 보온과 더불어 주요한 것이 수분 공급이다.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꼭 필요한데 봄에는 낮 기온이 낮고 날씨가 나빠 물 공급을 위해서 작업을 나가 죽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소문 급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봉장주변에 공동 급수시설을 만들어 수분을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초순까지 물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수분공급의 일환으로 하루건너 한번 씩 사양을 뭉게 해서 주는 방법도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자극도 되어서 산란권 확대가 잘되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외부에서 꿀이 들어올 때 육아가 잘되는 원인 중에는 꿀 속에 들어 있는 수분이 내부 습도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양을 자주 시키는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혹시 물 공급을 잘못해 줄때는 벌통이 열을 안 받도록 짚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착봉도 너무 강하게 해주지 말아야 저녁에 결로 현상이 많이 생겨 그 물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개포 위에도 비닐을 덮어 여기에 맺는 물을 이용하도록 응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때 비닐은 적당히 또는 적당한 때 벗겨야지 오래 동안 두면 과보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가 있다.

## 마. 부저병 방제

봄에 육아가 시작 됨과 동시에 발병할 수 있고, 치료는 주로 분무나 사료에 항생제를 타서 주게 되는데 우리 양봉 농가는 지난 소비자시민모임 사건을 거울삼아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잔류에 조심해야 하며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부저병이 발병된 봉군이 발견될 시에는 그 통만 별도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식약청에서 벌꿀 항생제를 고시하여 관리하니 우리 양봉농가는 주의해야 한다. **양봉**